

최희연 피아노 독주회



지난 9월 클라라 슈만의 협주곡을 초연하였던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독주회가 11월 6일 LG아트센터에서 있었다. 음악인들과 팬들로 가득 메운 이 독주회는 기대감으로 흥분된 속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피아노계를 새롭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최희연의 음악세계는 독일의 정통 클래식 내음과 미국의 새로운 조류를 혼합시킨 자신만의 또 다른 색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젊음의 신선함과 그녀만이 가진 특유의 겸허함은 온 청중을 자신의 음악세계로 몰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최희연은 이미 학창 시절부터 국내 콩쿨을 석권하였다. 그 이후 여러 국제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며, 1998년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콩쿨에서 1위함으로써 그녀의 비르투오스함과 정밀함을 보여주었다.

이날 첫 곡으로 연주한 슈베르트의 「작품90의 3번 G♯장조」는 소박하고 청초한 노래를 풍부한 화성의 변화와 더불어 아름답게 선율을 이끌어냈다. 감미롭게 시작을 유도함으로써 그녀의 음악 속으로 청중을 용이하게 끌어들이 수 있었다. 슈베르트 「소나타 유작 B♯장조」는 연주자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 곡이었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아니 그 어려운 반복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은 마치 절망에서 허덕이는 삶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참신하고 순결하면서 값있는 용기였다고도 생각되어진다. 제2악장의 안단테 소스테누토에서는 단순한 3부 형식을 신비한 색채로

표정을 넣어 대조시켰으며, 제3악장 스케르초는 악센트를 리듬감있게 조절하여 섬세한 흥미를 자아냈다.

피아니스트라 하면 누구나 관철해야 하는 쇼팽의 「연습곡 Op.25」의 전곡은 한 곡마다에 필요한 기량을 완숙하게 보여주었다. 「제2번 f단조」의 논 레가토의 소리를 유연하게 구슬을 굴리듯 연주하였고, 「제3번 F장조」는 튀어 오르는 물고기 형상을 변화되는 악센트로 선율 실정을 과감하게 표현하여 마치 실다래가 폴리듯이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제4번 a단조」는 한 숨에 해치우듯이 연주하였고, 「제5번 e단조」는 멜로디의 분위기를 살려 레가토와

리듬을 분산시킴으로 음악적 효과를 배가시켰다. 제6번은 3도 테크닉의 단순한 기교의 변주를 벗어난 통탄의 울부짖음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제10번에서는 약간 지친 듯하여 열정을 호방하게 표출하지 못해 못내 아쉬웠지만, 제11번과 12번에서 다시 재충전된 듯 혁명적인 정열을 분출하였다.

한국의 클라라 하스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최희연은 낙엽이 뚝뚝 떨어지던 밤, 그녀의 음악에 대한 진지함에 숨죽인 관중들을, 섬세한 터치로 서정과 낭만이 녹아 흐르는 선율의 바다에 빠뜨렸다. 참 음악인들이 바라는 소망이라면 최희연과 같은 새로운 별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신선한 충격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대에 부응했던 출중한 기량과 신선함